

野 ‘한일회담 국조 추진’에 與 “쇄국정책 답습”

주호영 “국조대상 아냐...시간 지나면 좋은 평가 있을 것”

국민의힘은 22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한말에 쇄국정책을 고집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엄청난 고통 속에 밀어넣었다”면서 “민주당이 그와 같은 과거 행태를 답습하리란 역사적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면서 “미래와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 정상화가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기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탄핵”, ‘국정조사’ 등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위협을 퍼붓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일당독재 수준이며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불러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법안 발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며 “2년째 계류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있음에도 이 대표가 또다시 본인의 명의로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독도 지키기’란 열보다 ‘죽장가’라는 잣대에만 관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까지 국정조사를 들이대

는 것은 나라도 너무 나간 처사”라면서 “민주당 집권 시절 파탄 내고 몽개 왔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딜 봐서 국정조사감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정조사’나 ‘탄핵’까지 멋대로 휘두르겠다고 떠비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헌법 질서 파괴행위’이자 ‘국곡’ (국회현장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을 보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은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만날 반대만 하는 집단”이라고 힐난했다.

박대출 의원은 SNS에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8년 일본 아지노모도도 경기도의 투자 업무협약(MOU) 체결을 가리키며 “민주당 논리로 대라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전법 기업과 MOU 맺은 것은 ‘전범의 허수아’이고 군항발에 짓밟히고 경기도를 팔아먹은 것이 될 것”이라며 꼬집었다.

김학용 의원은 개인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뿌리 깊은 반일 정서에 기대려고 흡집 잡기와 선동에만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두뇌 기능’이 정지된 치졸한 행태가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의원석 피켓 대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각각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갑니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피켓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 日수출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日 보다 빠른 복원 절차, 반발 우려 지적

23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 지적과 관련해선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떡을 쥐어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가량이 소요되지만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정부, 징용 피해자와 더 많은 소통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과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결단, 양보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받아지려면 피해자나 유족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그다음에는 일본의 협력을 받아내야 된다”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하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

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일본 총리가) 분명한 태도를, 입장을 밝혀줘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면서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국민도 만족스럽진 않아도, 한일이 가장 근접한 나라고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가 있고 하니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의결할 것을 두고는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좀 바뀔 것”이라며 “플러스 50(석)은 없애는 방법으로 같 것 같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MB, 천안함·연평도 희생자 묘역 참배

특사후 첫 공식 일정...“자유의 전선서 헌신”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 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등을 참배했다.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이다. 현충원 참배는 2018년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5년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천안함 46 용사 묘역과 한주호 준위 묘역,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자유의 전선에서 헌신한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고(故) 한주호 준위 등 순직한 희생자들의 묘역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고(故) 민병기 상사의 묘역을 만지며 그의 모친 윤정자 여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윤 여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는 돌발질문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참배에는 류유익·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두우·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 24명이 함께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복권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묘역 참배를 택한 것은 재임 당시 벌어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 매해 천안함 용사들의 기일에 반드시 국립현충원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홍상표 전 홍보수석은 전했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4층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